**연중 제25주일/한가위 미사(2018년 9월 23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추석입니다. 한자어로는 ‘중추절’이라고 하고, 순 우리말로는 ‘한가위’라고 하죠. 이 말은 ‘가을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부터 큰 명절로 지내왔던 날입니다.

이때는 여름처럼 덥지도 않고, 겨울처럼 춥지도 않아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계절이고, 또 한해 동안 지은 농사의 수확을 거두는 때이기 때문에 먹을 것도 풍족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부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양반이나 상민이나, 머슴이나 모두 이날 만큼은 새옷 차려입고, 햇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이웃끼리 가족끼리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생겼던 거죠. 한가위가 국가 명절로 정식으로 제정된 것이 삼국시대 초기였다고 하니까 2000년이 훨씬 넘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고유의 명절입니다.

한국의 명절은 생각만 해도 참 풍요롭고 따뜻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서로 잊고 살았고 자주 만나지 못했던 부모, 형제, 친척들이 다 모여서 고향의 정을 나눕니다.

더군다나, 이 명절때는 주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바로 이 제사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제사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돌아가신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기억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죽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한 가족이라는 친밀함을 확인하고, 돌아가신 부모님들과 조상님들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들이 더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다짐도 하고, 가족끼리 서로 축복도 해주는 겁니다. 또 어렵고 힘든 가족이 있으면 서로 위로도 하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단순히 돌아가신 영혼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족들이 서로 함께 나누고, 가족의 존재감과 유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을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지내면서 먹고, 마시고, 놀고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새롭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는 죽은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제사의 정신이 우리가 드리는 미사에도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미사도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인류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죽은 이들과 살아있는 이들이 미사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전통 제사의 근본 정신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인 미사가 우리를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는 고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당의 신앙 공동체가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서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은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겪게되는 많은 일들을 함께 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제사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전통 명절에 느낄 수 있는 마음은 바로 사랑과 나눔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에서 느낄 수 있는 것도 바로 사랑과 나눔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눌때 서로가 참으로 소중한 가족이 될 수 있고, 우리 공동체도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가족, 친척 사이라 하더라도 서로 상처주고 마음 상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족인데도 서로 웬수처럼 살기도 합니다. 살다 보니까 가족이라도 서로 가는  길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 받은 상처 달래주고,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용서하시고, 더 많이 나누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순간 순간 사랑하고, 순간 순간 행복하세요. 그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인생이 저물어 갈때, 인생 마지막 순간에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버릴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가슴에 울립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움켜쥐고 살았던 그 많은 것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하늘 나라에 보물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세상일에만 연연해서 마음 다 뺏기고 살지 마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적인 재물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 간단합니다. 성당에 헌금 많이 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많이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가진 것을 나누면서, 착하게 살면 그것이 덕을 쌓는 길입니다. 그것이 비록 가진 것 많지 않아도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너그럽게 그리고 평화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여름도 다 지나고, 9월도 다 지나가도 있습니다. 다음 주가 지나면 10월이 시작되고, 가을도 점점 깊어 갈 겁니다. 그러면 곧 연말되고, 올해도 또 얼마 남지 않겠지요.

안도현 시인의 ‘가을 엽서’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잎, 두 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 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 지를…”

풍성한 한가위 명절 처럼, 늘 마음 포근하고, 따뜻하게, 서로 나누어서 행복한 신앙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